

# 2020학년도 모의논술고사[인문·체육계]

## 1. 2020학년도 모의논술고사 예시답안

### 논제 1

제시문 [가]와 [나]는 인간의 자연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을 보여준다. 제시문 [가]는 도시화된 삶에 익숙한 현대인이 바라보는 무의미하고 일상적인 자연환경의 권태로움을 묘사하고 있다. 여기서는 인간이 자연에 대해 무관심하며, 어떠한 감흥도 느끼지 않는다. 제시문 [나]는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으로서의 자연을 형상화하고 있다. 한정된 자연자원이 인간에게 오기까지 걸린 시간을 망각하고,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낭비를 일삼는 인간의 자연에 대한 무신경한 인식을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있다.

[가]와 [나]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첫째는 자연의 의미에 관한 것이다. [가]의 화자는 자연을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객관적인 하나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반면, [나]의 글쓴이는 자연이 지구라는 우주선에 인간과 함께 동승한 승객이라는 입장으로, 공존의 대상으로서의 자연을 묘사한다. 둘째는 자연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에 관한 것이다. [가]는 물가에 앉아서 무엇을 사색해보려 해도 아무런 제목도 떠오르지 않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하는 태도에서 나타나듯, 자연과 소통이나 교감이 전혀 없는 단절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나]는 ‘불필요한 생산’과 같은 책임 없는 소비로 점차 훼손되어 가는 자연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연과 공존하려는 태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671자)

### 논제 2

제시문 [바]는 ‘권리’의 개념이 인간 너머, 지구 공동체 모든 성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권리라는 용어가 인간의 자유와 인권을 옹호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어왔다면, 그러한 제한적 권리는 다른 생명체들을 범의 이름으로 제외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생태계 전체의 공존에 대한 배려 없이 일부 특정 존재의 권리만을 옹호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바]는 인간중심주의가 초래한 자연 파괴로부터 모든 생명체를 지키기 위해 권리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피력한다.

[다]는 밀이 초기 농업혁명을 거치며 어떻게 인류사를 뒤바꾸었는지 주목한다. 경작과 재배 양식으로의 전환을 인류 발전의 획기적 사건으로 파악한 것이 기존 역사관이라면, [다]는 밀 때문에 인류가 노예적 삶으로 내몰렸다고 주장한다. [다]의 주장은 언뜻 밀과 인간의 주객전도를 통해 인간중심주의를 탈피하는 듯 보이지만, 밀이 결과적으로 인간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생명체들의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는 [바]의 관점과 배치되고, 밀의 확산으로 인해 사라진 식물들과 동물들의 운명을 간과한다는 점에서 비판될 수 있다.

[라]는 약 200년 동안 유럽에서 생물학적 연구 대상이자 문화적 유희의 재료로 이용된 아프리카 여인 사르키의 참혹한 운명을 고발한다. 해부되고, 훼손되기를 거듭한 그녀의 시신은 제국주의가 자행한 야만적 인종주의와 이데올로기의 민낯을 증언한다. 모든 생명체가 동등하게 포용돼야 한다고 보는 [바]의 관점에서 이와 같은 인종주의는 비판되며, 나아가 서구적 인간중심주의의 극복을 위해서도 계속 반추해야 할 반면교사다.

[마]는 바퀴벌레의 끈질긴 생명력에 경악한다. 인류가 해충 박멸을 위해 싸운 긴 세월에 비취 바퀴벌레의 적응력은 공상과학이나 비견될 공포의 대상이다. 바퀴벌레에 대한 이와 같은 두려움과 천착은, 해충을 포함해 함께 살아가는 동물들의 존재를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바]와 맥락을 같이한다. 유해성이라는 기준으로 생명체를 구분하는 것은 생명을 인간 편의에 따라 도구화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이러한 인간중심적 사고가 결국 지구의 파멸을 재촉할 수 있다고 암시함으로써 [바]의 논지에 부합한다. (1,054자)

## 2. 2020학년도 모의논술고사채점 기준

### 1. 점수 배정

- ① 만점 : 각 논제 당 100점(두 논제 도합 200점)
- ② 기본 점수 : 60점
  - 답안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이라도 쓰면 60점
  - 백지 및 답안과 관련 없는 글, 특별한 표시는 0점
- ③ 기준 점수 : 상(100점~90점), 중(89점~70점), 하(69점~0점)

### 2. 채점 기준 : 정량평가

#### 1) 원고지 사용법

- ① 띄어쓰기를 포함한 원고지 사용법, 국어정서법에 관한 것은 비교적 관대하게 처리하나 현격한 잘못을 범하고 있을 경우 채점위원의 재량에 따라 감점 처리한다.
- ② 예리한 문제 제기, 독창적인 구성, 탁월한 표현력 등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 ③ 백지이거나 고의적으로 특별한 표시를 한 답안은 0점 처리. 특별표시 여부는 해당 채점위원 전원의 협의를 거쳐 처리한다.

#### 2) 원고분량에 따른 감점

- ① 원고분량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서술 내용을 중시)
- ② 아래의 기준으로 제시한 분량을 조금 벗어났다고 해도 일률적으로 감점 처리하지 않는다. ③ 지나치게 모자라거나 넘칠 경우에만 감점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 ● <논제 I> (601자 이상~700자 이하)

- 500자 미만: 감점 20점
- 500자 이상~550자 미만: 감점 10점
- 750자 이상~800자 미만: 감점 10점
- 800자 이상: 감점 20점

#### ● <논제 II> (1001자 이상~1100자 이하)

- 900자 미만 : 감점 20점
- 900자 이상~950자 미만: 감점 10점
- 1150자 이상~1200자 미만: 감점 10점
- 1200자 이상 : 감점 20점

#### 3) 원고분량에 따른 기타 기준

- ① 답안의 마지막 행에 한 자라도 쓸 경우 한 행을 채운 것으로 간주한다.
- ② 답안 가운데 한 행 이상을 지우고 보충하지 않았다면 그 행은 공란으로 간주한다.
- ③ 주어진 필기도구로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란으로 간주한다.  
(예; 연필로 작성한 부분은 무효 처리)

### 3. 채점 기준 : 내용평가

#### 1) <논제 I> (100점 만점/60점 기본 점수)

- ① 제시문 [가]의 내용을 제대로 요약하면 10점 가점
- ② 제시문 [나]의 내용을 제대로 요약하면 10점 가점
- ③ 제시문 [가], [나] 논지의 차이가 잘 드러나게 서술하면 10점 가점
- ④ 비슷한 뜻의 문장을 반복하거나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않고 자신의 언어로 내용을 통일감 있고 조리 있게 서술했으면 10점 가점(창의성 및 표현력 등을 중시)

#### ※ 채점 시 유의사항

(1) 제시문 [가]는 도시화된 삶에 익숙한 현대인이 바라보는 무의미하고 일상적인 자연환경의 권태로움을 묘사하고 있다. 여기서는 인간이 자연에 대해 무관심하며, 어떠한 감흥도 느끼지 않는다. 제시문 [나]는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으로서의 자연을 형상화하고 있다. 한정된 자연자원이 인간에게 오기까지 걸린 시간을 망각하고,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낭비를 일삼는 인간의 자연에 대한 무신경한 인식을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있다.

[가]와 [나]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첫째는 자연의 의미에 관한 것이다. [가]의 화자는 자연을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객관적인 하나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반면, [나]의 글쓴이는 자연이 지구라는 우주선에 인간과 함께 동승한 승객이라는 입장으로, 공존의 대상으로서의 자연을 묘사한다. 둘째는 자연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에 관한 것이다. [가]는 물가에 앉아서 무엇을 사색해보려 해도 아무런 제목도 떠오르지 않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하는 태도에서 나타나듯 자연과 소통이나 교감이 전혀 없는 단절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나]는 '불필요한 생산'과 같은 책임 없는 소비로 점차 훼손되어 가는 자연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연과 공존하려는 태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파악해서 요약하고 그 논지의 차이(출제자의 의도 파악)를 대비적으로 명확하게 서술한 경우 높게 평가를 한다.

(3) 각 제시문의 내용에 대한 요약과 논지의 차이를 서술하는데, 제시문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보다는 얼마나 자신의 언어로 논리 정연하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였는가를 중요시한다.

#### 2) <논제 II> (100점 만점/60점 기본 점수)

- ① 제시문 [바]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여 서술하면 10점 가점
- ② 제시문 [바]의 관점에서 제시문 [다]의 상황을 제대로 평가했으면 10점 가점
- ③ 제시문 [바]의 관점에서 제시문 [라]의 상황을 제대로 평가했으면 10점 가점
- ④ 제시문 [바]의 관점에서 제시문 [마]의 상황을 제대로 평가했으면 10점 가점
- ⑥ 비슷한 뜻의 문장을 반복하거나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않고 자신의 언어로 내용을 통일감 있고 조리 있게 서술하였는가를 중시한다.

#### ※ 채점 시 유의사항

(1) 제시문 [바]는 ‘권리’의 개념이 인간너머, 지구 공동체 모든 성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권리라는 용어가 인간의 자유와 인권을 옹호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어왔다면, 그러한 제한적 권리는 다른 생명체들을 법의 이름으로 제외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생태계 전체의 공존에 대한 배려 없이 일부 특정 존재의 권리만을 옹호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바]는 인간중심주의가 초래한 자연 파괴로부터 모든 생명체를 지키기 위해 권리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피력한다.

(2) 제시문 [다]는 밀이 초기 농업혁명을 거치며 어떻게 인류사를 뒤바꾸었는지 주목한다. 경작과 재배 양식으로서의 전환을 인류 발전의 획기적 사건으로 파악한 것이 기존 역사관이라면, [다]는 밀 때문에 인류가 노예적 삶으로 내몰렸다고 주장한다. [다]의 주장은 언뜻 밀과 인간의 주객전도를 통해 인간중심주의를 탈피하는 듯 보이지만, 밀이 결과적으로 인간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생명체들의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는 [바]의 관점과 배치되고, 밀의 확산으로 인해 사라진 식물들과 동물들의 운명을 간과한다는 점에서 비판될 수 있다.

(3) 제시문 [라]는 약 200년 동안 유럽에서 생물학적 연구 대상이자 문화적 유희의 재료로 이용된 아프리카 여인 사르키의 참혹한 운명을 고발한다. 해부되고, 훼손되기를 거듭한 그녀의 시신은 제국주의가 자행한 야만적 인종주의와 이데올로기의 민낯을 증언한다. 모든 생명체가 동등하게 포용되어야 한다고 보는 [바]의 관점에서 이와 같은 인종주의는 비판되며, 나아가 서구적 인간중심주의의 극복을 위해서도 계속 반추해야 할 반면교사다.

(4) 제시문 [마]는 바퀴벌레의 끈질긴 생명력에 경악한다. 인류가 해충 박멸을 위해 싸운 긴 세월에 비춰 바퀴벌레의 적응력은 공상과학이나 비건될 공포의 대상이다. 바퀴벌레에 대한 이와 같은 두려움과 천착은, 해충을 포함해 함께 살아가는 동물들의 존재를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바]와 맥락을 같이한다. 유해성이라는 기준으로 생명체를 구분하는 것은 생명을 인간 편익에 따라 도구화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이러한 인간중심적 사고가 결국 지구의 파멸을 재촉할 수 있다고 암시함으로써 [바]의 논지에 부합한다.

#### [참고] 제시문 출전

[가] 이상의 「권태」, 『이상 전집 4』, 뿔, 2009, 118-119쪽.

[나] 최성각, 「날아라 새들아」, 『고등학교 문학』, 신사고 2013, 412-413쪽

[다] 유발 하라리, 조현욱 옮김, 『사피엔스』, 김영사, 2015, 124-126쪽

[라] 레이철 홈스, 이석호 옮김, 『사르키 바트만』, 문학동네, 2011, 257-258쪽.

[마] 김기택, 「바퀴벌레는 진화 중」, 『고등학교 문학』, 지학사, 2013, 407쪽.

[바] 코막 켈리닌, 박태현 옮김, 『야생의 법』, 로도스, 2016, 166쪽-167쪽.

### 3. 2020학년도 모의논술고사문항 해설

2020학년도 경희대학교 인문·체육계열 모의논술고사는 총 두 문제를 출제하였다. 고등학교 학력 수준에 맞추어 범교과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력, 논리적·분석적 추론 능력, 비판 능력 등을 기반으로 한 종합적 사고 능력 및 서술 능력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본 논술고사에서는 고등학교 『사회 문화』 교과서에 자주 등장하는 ‘환경과 녹색 성장’, ‘인간과 지구 생태계’ 및 『국어』, 『문학』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문학의 기능과 현실 인식’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최근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탈인간중심주의적 자연관과 가치문제’를 탐색해 보는 문제를 출제하였다. 여기에는 인류가 직면한 생태계적 위기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문제 I>에서는 인간의 자연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다루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 도구적 자연관과 인간중심주의 윤리, 생명중심주의 윤리와 환경 문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윤리적 자세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이 자연을 대하는 다양한 관점이나 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였다.

<문제 II>는 생태계 전체를 이루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권리’가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도구적 자연관과 인간중심주의적 사고를 넘어 새로운 탈인간중심주의적 자연관과 가치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구는 우리 삶의 기반이다. 인간은 역사 이래로 자연을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이제 지구의 수용력은 한계에 이르렀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기존의 인간중심주의 역사관, 서구중심적 인종차별주의, 무차별적인 환경파괴 등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윤리와 가치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문제 II>의 핵심 질문이다.

본 논술고사는 응시생들이 고등학교 교과서 및 잘 알려진 교양서적에서 발췌한 다양한 양식의 제시문들의 핵심을 파악하고 논리정연하게 답안을 서술하였는가를 평가하고자 한다. 특히, 각 텍스트를 개별적이며 고립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다른 텍스트와의 관계와 맥락 속에서 그 의미를 입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술고사는 다양한 성격의 제시문을 통하여 여러 텍스트를 관통하는 공통의 주제를 파악하고, 차이를 발견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수험생이 특정 주제에 대한 사전 지식을 논술 답안에 그대로 옮겨 쓰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제시문의 관점을 파악하고 그 관점에서 다른 제시문의 내용을 분석·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할 것이다.

각각의 제시문의 출전은 다음과 같다.

- [가] 이상의 「권태」, 『이상 전집 4』, 뿔, 2009, 118-119쪽.
- [나] 최성각, 「날아라 새들아」, 『고등학교 문학』, 신사고 2013, 412-413쪽
- [다] 유발 하라리, 조현욱 옮김, 『사피엔스』, 김영사, 2015, 124-126쪽
- [라] 레이철 홈스, 이석호 옮김, 『사르키 바트만』, 문학동네, 2011, 257-258쪽.
- [마] 김기택, 「바퀴벌레는 진화 중」, 『고등학교 문학』, 지학사, 2013, 407쪽.
- [바] 코막 켈리넨, 박태현 옮김, 『야생의 법』, 로도스, 2016, 166쪽-167쪽.

각 제시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작품으로, 도시화된 삶에 익숙한 현대인이 바라보는 무의미하고 일상적인 자연환경의 권태로움을 묘사하고 있다. 여기서는 인간이 자연에 대해 무관심하며, 어떠한 감흥도 느끼지 않는다. 제시문 [나]는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으로서의 자연을 형상화하고 있다. 한정된 자연자원이 인간에게 오기까지 걸린 시간을 망각하고,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낭비를 일삼는 인간의 자연에 대한 무신경한 인식을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있다. 제시문 [다]는 밀이 초기 농업혁명을 거치며 어떻게 인류사를 뒤바꾸었는지 주목한다. 경작과 재배 양식으로의 전환을 인류 발전의 획기적 사건으로 파악한 것이 기존 역사관이라면, [다]는 밀 때문에 인류가 노예적 삶으로 내몰렸다고 주장한다. 제시문 [라]는 약 200년 동안 유럽에서 생물학적 연구 대상이자 문화적 유희의 재료로 이용된 아프리카 여인 사르키의 참혹한 운명을 고발한다. 해부되고, 훼손되기를 거듭한 그녀의 시신은 제국주의가 자행한 야만적 인종주의와 이데올로기의 민낯을 증언한다. 제시문 [마]는 바퀴벌레의 끈질긴 생명력에 경악한다. 인류가 해충 박멸을 위해 싸운 긴 세월에 비춰 바퀴벌레의 적응력은 공상과학이나 비건될 공포의 대상이다. 바퀴벌레에 대한 이와 같은 두려움과 천착은, 해충을 포함해 함께 살아가는 동물들의 존재를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제시문 [바]는 ‘권리’의 개념이 인간너머, 지구 공동체 모든 성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권리라는 용어가 인간의 자유와 인권을 옹호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어왔다면, 그러한 제한적 권리는 다른 생명체들을 법의 이름으로 제외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생태계 전체의 공존에 대한 배려 없이 일부 특정 존재의 권리만을 옹호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바]는 인간중심주의가 초래한 자연 파괴로부터 모든 생명체를 지키기 위해 권리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피력한다.

<논제 I>은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요약하고, 논지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으로 자료에 대한 독해력과 비교·분석 및 서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논제 II>는 제시문 [바]의 내용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제시문 [다], [라], [마]에서 제시한 상황을 평가하는 문제로, 이를 통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태도를 인문학적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출제하였다.